



결핵의 예방과 치료

류우진/결핵연구원 기술지원부장

이 글은 결핵전문가가 결핵환자와 가족, 일반인 및 결핵종사자 등이 쉽게 이해하고 결핵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핵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집필해 가고 있는 글이다. (편집자 주)

결핵의 증상

이번 달에는 결핵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결핵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가? 그래서 증상만으로 결핵을 진단할 수는 없을까? 한마디로 임상적인 소견만으로는 결핵을 진단할 수가 없다. 그 이유로는 환자에 따라 임상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임상적인 증상(symptom)과 징후(sign)가 결핵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방사선 및 세균학적인 검사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상소견은 진단에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무시할 수는 없다.

물론 환자의 과거병력이나 결핵환자에

게 노출된 경험 등의 자세한 병력채취(history taking)도 진단과정에서 중요하지만, 이러한 병력채취에서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경우는 환자가 호소하는 임상증상으로부터 진단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게 된다.

결핵은 발병하는 부위(폐, 흉막, 림프절, 뇌, 척추, 신장...)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신 결핵이면 혈뇨(hematuria)와 경우에 따라 방광염의 증상(배뇨곤란, 빈번한 뇨의(尿意), 통증...)이 나타나고, 척추결핵이면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결핵성 뇌막염이면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결핵의 대부분이 폐에서 발병하므로 폐결핵의 증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성인에게서 폐결핵을 호흡기와 관련된 증상과 호흡기 이외의 전신증상으로 구분하여 보면, 호흡기 증상으로는 기침이 가장 흔하며 객담도 나타난다. 혈담은 무관심하던 환자들을 놀라게 하여 의사에게 진찰을 받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예가 많다. 또한 병이 진행되어 폐의 손상이 심해지면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흉막이나 심막을 침범하였을 때는 흉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전신증상으로는 발열, 발한(특히 밤중), 쇠약감, 신경과민, 집중력 소실, 소화불량, 그리고 식욕부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식욕부진은 환자에게 체중감소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증상들은 물론 결핵환자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증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폐결핵환자의 흔한 증상으로

는 기침, 객담(또는 혈담), 발열, 그리고 전신적인 무력감과 체중감소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1990년도 제6차 전국결핵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폐결핵과 증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침과 객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흉통, 쇠약감, 체중감소, 미열, 그리고 혈담순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균양성 폐결핵 환자의 44.1%에서는 증상이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만약에 앞서 언급한 흔한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한다면 그 이외의 수많은 활동성 결핵환자들을 놓치게 된다. 다시 말하여 증상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한 신뢰성이 낮아 잘못 판단하기도 한다.

소아결핵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성인 결핵에서보다 더 증상이 명확하지가 않다. 역시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하며, 때로는 체중감소 또는 체중증가의 징지, 식욕부진, 놀지를 앓으려고 하거나 이유없이 보채기도 한다. 기침은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기관지로 진행이 된 경우에 나타난다. 객담은 드물기 때문에 세균학적인 검사를 하기가 어려워 진단이 쉽지 않다. 따라서 소아결핵은 주위 가까운 접촉자 중의 전염성환자에 의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단에서 임상소견과 병력채취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폐결핵 환자의 70~80% 정도가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증상들은 급성 또는 아급성(亞急性)으로 호흡기와 관련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

으나, 반드시 폐결핵 환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증상은 아니다. 따라서 결핵으로 인한 증상이 환자자신이나 의사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흡연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 또는 다른 폐질환의 증상 등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게다가 똑같은 정도의 폐결핵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환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환자가 속해있는 사회, 문화, 지리적인 배경에 따라 의사에게 진찰받고자 찾아오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증상이 없다고 한 환자들 중에는 치료하는 도중에 후향(後向)적으로 증상이 있었음을 깨닫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병의 진행된 정도가 같더라도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예를들어, 조금씩 천천히 병이 진행되는 경우는 환자자신도 조금씩 적응을 하여 병이 상당히 진행되었는데도 정작 본인은 아무런 증상도 못느끼거나 증상을 느꼈더라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결론적으로 결핵에만 나타나는 고유한 증상은 없으며, 결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또한 다른 호흡기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핵이 의심될 때는 확진을 위해서 반드시 세균학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대체로 기침과 객담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결핵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자나 보건관계자의 보건교육을 통해서 환자가족이나 가까운 접촉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